



보도시점

즉시

배포

즉시

2024 대테러 전담조직 합동전술훈련 실시 - 현존 위협 대응과 신종 테러위협 대비 역량 강화 -

- ◆ AI·드론·화생방(미지시료) 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신종 테러위협에 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확인
 - (기간/장소) 5.28(화)~31(금) / 47국가대테러훈련장(경기도 광주)
 - (참여) 12개 기관 160여명(국정원, 국방부, 경찰청, 해경청, 소방청 등)
 - (훈련내용) △對드론 등 新테러 대응 합동전술토의 △저격·EOD·對화생방 등 분야별 합동훈련 △ 여객터미널·여객선內 대테러 전술종합훈련 등
- ◆ 대테러센터장 주관 사후 강평 및 격려

□ 대테러센터(센터장 신상균)는 5. 28(화)부터 5. 31(금)까지 47국가대테러 훈련장에서 대테러특공대 등 대테러 전담조직의 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「2024 대테러 전담조직* 합동전술훈련」을 실시했다.

* (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) △대테러특공대 △테러대응구조대 △대테러합동조사팀 등

□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

- 국가정보원, 국방부(707특수임무단, 해군특수전전단, 화생방방호사령부, 국방부조사본부, 육군 정보학교 드론교육센터), 경찰청(대테러위기관리과, 서울·충남경찰특공대, 협상팀), 해양경찰청(중부지방청, 중부·동해·서해청 특공대, 협상팀) 소방청 등 12개 기관 160여명이 참가하였으며,
- 국가 테러대응체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테러특공대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합동전술훈련을 대화생방테러특임대, 협상팀 등 다른 대테러 전담조직까지 대폭 확대하여,

- △ 대드론 등 新테러 대응 합동전술토의 △ 저격·EOD·對화생방 등 분야별 합동훈련 △ 여객터미널·여객선內 대테러 전술종합훈련 등을 통해 최근 드론·화생방(미지시료) 등 신홍안보위협 요소로 진화하고 있는 신종 테러위협 수단과 ‘이-하마스’ 무력충돌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실질적인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, 국내 발생가능한 테러 상황을 상정하여 관계기관의 대테러 통합작전 역량을 제고하였다.
- 또한 위험하고 강도가 높은 대테러 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와 참여기관은 훈련에 앞서 위험성 평가에 만전을 기하였다.

□ 신상균 대테러센터장은 훈련 강평에서

- 정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테러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고, 이번 훈련을 통해 고도화되는 신종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개발소요를 식별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며,
- 앞으로도 ‘국민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우리의 사명’이라는 소임 아래 대테러요원들이 테러 예방과 대비태세 확립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부 장	이한형 (02-2100-2032)
	대테러센터	담당자	중 령	이광희 (02-2100-202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



